



유아교육진흥원, 유아 미래교육 체험 신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원장 강혜정)은 3일 유아 미래교육 체험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미래교육 체험은 매주 1회씩 도내 5세 공사립유치원 유아를 대상으로 연간 1,000명이 참여, 1일 체험으로 진행된다. 이는 유아들이 디지털 놀이를 통해 미래 역량을 기워갈 수 있도록 코딩놀이, AI 로봇놀이, 코딩드론 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체험에 참여한 유아들은 비누 코딩, 알파미니와 함께 놀이하면서 AI 로봇, 드론 등과 친구가 돼 미래 교육을 경험하게 된다. 강혜정 원장은 “유아 미래교육을 위해 유아교육진흥원이 유아체험, 교원 연수, 부모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생체활성 골조직 재생용 3D 지지체 개발

전북대 서일원 박사과정생 · 장세림 연구조교수, 세계 상위 3.5% 저널 게재

전북대학교 서일원 박사과정생 정생(바이오나노융합공학과, 지도교수 김철생)과 장세림 연구조교수(기계설계공학부)가 새롭게 합성된 바이오세라믹을 이용한 골조직 재생용 3D 지지체를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화학공학 및 재료공학 분야 세계 최고 권위 학술지 중 하나인 'Chemical Engineering Journal(IF=15.1, 세계상위 3.5%)' 온라인판 최신호에 게재됐다. 오프라인 저널에는 5월 게재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최근 안전하면서도 생체 활성(bioactive)이 뛰어난 바이오 세라믹을 합성하고 의료기기에 적용하는 연구와 표면 개질을 통한 새로운 생체재료를 산업 분야에 적용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바이오 세라믹 소재는 인공 관절과 같은 정형외과 임플란트 등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고, 새로운 소재에 대해서는 임상 연구에서 중요시된다. 그러나 우수한 생체 안정성 및 생체 적합성을 동시에 갖는 새로운 바이오세라믹의 연구 개발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난제로 남아있다.

이에 연구팀은 기존 개발된 바이오세라믹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전구체를 이용해 황산 티타늄(titanium sulfate)을, 이온-치환 기법을 이용해 꽃잎 모양의 티타늄 인산염(titanium phosphate) 바이오세라믹을 각각 합성하는데 성공했다.

새롭게 합성된 꽃잎 모양의 티타늄 인산염 바이오세라믹은 넓은 표면적을 지닌 형태와 비정질(amorphous) 구조를 통해 높은 생체 활성 특성을 보였으며, 3D 프린팅 기법을 통해 바이오 지지체로 제작됐다.

한편 이번에 개발된 3D 지지체는 인간 골수유래·중간엽 줄기세포(hBMMSCs)의 BMP 신호전달 경로를 촉진함으로써 세포 부착, 생장 및 분화를 유도했으며, 우수한 뼈 조직 재생 효과를 보였다.

/장은성 기자



장수 장계면 · 함양 서상면, 고향사랑 상생 기부 동참

장수군 장계면과 함양군 서상면이 지난달 28일 영호남 지역 발전을 위한 고향사랑 상호기부에 동참해 따뜻한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장계면과 서상면은 지난 1990년부터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친선교류 행사를 개최하는 등 영·호남간 돈독한 화합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고향사랑 상호기부는 면장들과 입장협의회 회장,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향사랑이음 시스템과 능협을 이용해 서로의 지지체에 교차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성현 장계면장은 “고향사랑 상생 기부로 서상면과 결연이 더욱 깊어지고 다방면에서 협력하는 기회가 됐다”며 “기부를 통해 장계면과 서상면 면민들이 적극 기부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남원 금지면 맞춤형 복지팀, 찾아가는 건강교실 운영

남원시 금지면 맞춤형 복지팀은 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영곤, 안민업)에서 복지허브사업 일환으로 ‘손발튼튼! 건강튼튼! 찾아가는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운영은 싱싱생생 건강교실 미운영 경로당을 중심으로 월 2회 방문해 혈압·혈당 측정, 건강상담을 통한 맞춤형 건강 교육을 제공한다.

더불어 손발 전문 간사가 함께 방문하여 소근육 자극을 위한 비누 만들기, 어르신의 손발 관절 건강을 위한 아로마 족욕, 기구를 이용한 발 마사지, 파라핀 마사지, 근육 테이핑 등을 병행하여 건강관리를 제공한다.

안민업 금지면장은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노후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양한 민관협력을 통해 통합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농업기술센터, 남원추어 차세대 CEO 아카데미 진행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는 남원시 추어 및 식품 산업 관련분야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2024 남원추어 차세대 CEO 아카데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아카데미는 전북도 동부권식품클러스터 사업의 하나인 남원추어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남원시와 남원추어식품클러스터사업단(이하 사업단)의 3단계 추어 아카데미 프로젝트 중 2단계 교육이다.

남원시의 미래를 책임질 남원시 청년 CEO들의 네트워크 확장 및 경영능력 배양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되며 지난 4월 2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6월까지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2024년 아카데미는 실무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2024년 식생활 트랜드와 차세대 CEO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주)아이마트 가공식품분야 임원의 특강을 시작으로 SNS 홍보마케팅을 위한 활용편집기법, 온라인마케팅 실무, 사례 중심 노무교육, 세무회계 실무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생들의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 교육생 참여범위를 추어산업에서 식품산업으로 확대하고 수업 외에 교육생들간 모임을 지원하고, 아카데미 수료생들의 선진지 견학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정희 사업단장은 “평균나이 31세인 젊은 교육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준비해 차세대 CEO들의 경영능력을 배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유수경 센터 현장지원과장은 “교육생들이 남원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156-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전주매일

www.j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발행 · 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옥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845-4113
설진지사
010-2333-4791
서신지사
272-9417
호지지사
010-8645-9935

중앙지사 010-9088-6874
인후지사 246-6855
송천지사 256-2404
팔복지사 253-6844
군산지사 010-6789-0038
의산지사 865-9923

남원지사 632-3996
김제지사 546-1227
남원지사 632-0956
순창지사 653-0444
부안지사 010-2425-4182
고창지사 563-6999

임실지사 010-9842-2725
진안지사 433-3064
정읍지사 536-3787
장수지사 010-3682-8157
무주지사 010-2300-4253

※ 구독료 :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순창경찰서, 순창형 주민 안전 모델 합동순찰

순창경찰서(서장 윤상현)는 지난 2일 순창군수, 순창군 자율방범연합대장, 순화자율방범대원, 순창군 가족센터 직원 등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창형 주민 안전 모델 합동순찰’을 가졌다.

이날 합동순찰은 군민의 일상을 지키고 민·관·경 공동체 친화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순창형 주민 안전 모델’을 추진함에 있어 지지단체와 합동순찰을 실천하고, 주민의 생생한 치안 의견을 듣고 이를 시책에 반영하여 공동체 친화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순창경찰은 지역에 맞는 안전 모델이 정착되어 순창이 더 발전하고 타 지역의 모범지안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순창형 주민 안전 모델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 삼계면 청년회 · 자율방범대, 성금 기탁

삼계면 청년회(회장 노규철)와 자율방범대(대장 박정희)가 지난 2일 삼계면사무소를 방문해 이웃돕기성금 50만원을 전달했다.

삼계면 청년회는 평소 이웃들을 위한 봉사 및 지역의 대소사에 적극 참여 및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정기적인 관내 환경정비를 실시해 깨끗한 마을 만들기에 앞장서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려운 이웃을 찾아 따뜻한 도움을 주는 등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노규철 청년회장은 “현재 물가 인상 등으로 모두가 어렵게 생활하고 있지만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회원 간 심사일반으로 성금을 모아서 이번에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